

찌꺼기가 새어 나오고 악취가 풍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반면 새로 보급될 전용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위생적인 데다 동물에 의해 훼손될 염려도 없다고 시측은 밝혔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올 1월부터 2개월간 은 행동, 목감동 등 6개 동을 대상으로 전용 용기의 사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거리가 청결해지고 음식물 쓰레기의양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다.

전용 용기의 규격은 3l와 5l 등 두 가지이며, 기존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칩으로 된 1회용 납부필증을 구입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대신한다. 칩의 가격은 3l는 1백원, 5l는 1백50원으로 전용봉투 가격과 동일하며, 칩을 용기에 붙인 다음 일주일에 하루 지정된 요일에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경상북도
농산물 물류효율화 2백33억 투입
포항, 김천 등 11개소에 1백85억원 투자

경상북도에서는 농산물 규격화, 표준화, 정보화 촉진을 통한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고,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 경영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에서는 WTO/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외적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량 규격농산물을 연중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별 품목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에 필요한 물류표준화 기계·장비류 2백20개소, 48억원을 지원해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금년에도 포항, 김천, 안동 문경, 영덕 등 11개소에 1백85억원을 투자하여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지방자치단체에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 표준화사업 확대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받은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냉동차량, 결속기, 제함기 등을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및 공영도매시장에 개소당 2억원, 장비별 1억원 미만으로 2백20개소에 48억원(국비 50%, 자부담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유통센터(APC)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하고 있는 APC에 대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합동으로 6월말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조직은 금리 및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고 금리(1~3% 차등지원), 운영자금(5~30억원 차등지원)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영체(하위 5%)에 대하여는 컨설팅업체, 농협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클리닉' 지원단을 구성, 농업경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개장한 영주 거점APC에

이어 금년에는 문경과 의성 거점APC가 완공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축으로써 권역내 APC의 계열화를 추진하고, 규모화, 규격화, 상품화, 브랜드화 등 경쟁력 강화로 산지유통센터의 경영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REACH Registration Expo 개최
 REACH 중요성 환기, 대상기업 등록 지원

지식경제부는 올해 6월 EU REACH의 사전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REACH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대상기업들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Registration Expo 2008』을 개최했다.

지난 달 18일날 열린 『REACH Registration Expo 2008』에서는 등록절차에 대한 상세정보와 데이터 제공은 물론, 국내기업이 EU 전문기관과 만나 사전등록을 위한 유일대리인 선임 등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한 EU 전문기관과 국내 컨설팅 기관별로 REACH 서비스 업무를 소개한 후, 국내 기업과 개별상담이 진행, 등록대상 물질확인, 사전등록 및 등록준비를 위한 컨설팅, 유일대리인 업무 협약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EU REACH 최신 동향 및 Zinc Oxide 유럽현지 시범등록사업 경과, 우리기업의 REACH 대응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는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올해 6월까지 매월 『REACH Registration Expo 2008』을 개최함으로써 해당 수출기업이 빠짐없이 사전등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식경제부
RFID R&D 전략포럼 개최
 운용기반 확충 응용 기술개발 확대 전략

지식경제부는 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자거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달 21일 코엑스에서 RFID 분야 전문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RFID R&D 전략포럼' (의장 최명렬 한양대 교수)을 개최했다.

RFID R&D 전략포럼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장기 기술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산업분야의 RFID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응용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첫 포럼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지난 3개월간 추진한 「RFID 기술개발 로드맵 및 세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업계수요를 중심으로 분산 추진되던 RFID 분야 기술개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전 산업분야 확산을 목표로 전략적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R&D전략포럼을 통해 관련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에 기반을 둔 단계별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RFID 기술개발 로드맵」의 특징은 민간 산업부문의 RFID 확산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요기업의 기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업종별 특화기술 및 현장 응용기술에 대한 대폭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RFID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전 산업분야 RFID 도입확산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은 ① 산업용 범용 태그 저가화 기술개발, ② 산업특화 특수태그 개발 확대 및 보급, ③ 보급형 표준모델 리더 및 환경 적응형 고성능 리더개발, ④ 단위업무 응용 S/W 내장 시스템 개발, ⑤ 전파환경 분석 및 극한환경 인식률 제고 기술, ⑥ 산업적용 표준기술모델 제정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RFID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RFID 기술개발 로드맵'에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된 후, 도출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배포
 용기 재질별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구 및 용기·포장 정보를 재질별로 원료물질, 제조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주요용도,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주해 등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청은 해설서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정부기관, 식품위생검사기관, 업체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전문성을 내실화해 식품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만개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기대

국내에서 판매되는 4만1천6백96개 의약품이 9만6천여개 코드로 표준화된다.

의약품 표준코드가 적용되면 의약품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달 22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지침에 따라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 일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의약품 표준코드는 의약품제조업자와 수입자가 지난 달 15일까지 제출한 의약품(3백72개사 4만1천6백96개)에 대한 9만6천여개 코드다.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란 의약품 유통을 위한 바코드와 보험청구를 위한 EDI 코드를 통합한 것이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자 식별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등 13자리로 구

성된다. 표준코드는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부여된다. 특히 제조업자 식별코드와 품목코드 등 9자리는 보험 청구때 사용될 예정이다.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곡표시제도 개선
등급이 품위로 변경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한수)은 소비자에게 쌀의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배경은 소비자와 유통업체에서는 단순히 산지, 가격, 브랜드 중심의 선호에서 탈피하여 쌀 품질에 따른 차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쌀 생산·유통환경의 변화와 쌀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파워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개선사항은 종전 권장표시사항인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여 쌀의 외관상 품위로 변경하고, 또한 쌀의 외관만으로 구별이 어려운 항목을 중심으로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에 대해서는 “품질” 표시 권장사항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포장이나 용기에 의무표시사항인 ① 품목, ② 생산연도, ③ 중량, ④ 품종, ⑤ 도정연월일, ⑥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성명) 및 전화번호, ⑦ 원산지와, 권장표시사항의 개선·신설은 품위(특,

상,보통)와 품질(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5~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고, 거짓, 과대의 표시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권장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더라도 같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개선된 양곡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분상질립, 싸라기 등 품위계측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1회용 위생용품 규격기준 일원화
개정안 마련

앞으로 위생용품 중 1회용 젓가락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종이컵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 규격기준과 일원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회용 물컵, 젓가락, 숟가락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식품공전의 규격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생용품 중 1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규격기준이나 시험방법이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 등을 규정하는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 규격기준과 유사해 업무불편과 혼란을 초래해 왔다.

충북농관원
농산물포장재비 지원
 농산물 품질향상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원장 신중호)은 올 도내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비를 22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사업별 지원액은 포장재비 11억9천만원(작목반 등 1백69개 조직), 공동선별비 2억5천만원(산지 유통전문조직 등 11개소), 결구배추, 무 포장유통비 8억1천만원(생산농민 등 3백82명) 등이다.

포장재비의 경우 단일 농가 또는 작목반별로 포장재 제작을 마친 뒤 세금계산서, 농가별 공급 내역서 등을 시·군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농산물 품질 향상, 물류비용 최소화 및 산지 쓰레기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적기에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시판 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원산지표시제 정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은 금년 MMA(최소시장접근물량)로 도입되는 수입 시판

쌀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달 14일부터 판매가 종료되는 날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5백25명과 생산자·소비자단체의 정예 명예감시원 3천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낙찰부터 최종 소비까지 유통 단계별로 조사를 벌인다.

전년도 적발업체, 소포장업체, 도정공장 등 취약업체는 우수 특별사법 경찰로 구성된 『원산지단속 112기동반』을 투입, 출고창고에서 부터 차량을 추적해 원산지둔갑 현장 적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국산과 육안식별이 어려운 중국 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 시중에 유통되는 쌀이나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쌀을 채취,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도입, 위반 사범 적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전자분석은 쌀 품종고유의 DNA구조를 해석하여 원산지식별에 활용하는 최첨단 분석법으로 현재 국산쌀 1백25개품종, 수입쌀 85개 품종에 대한 분석법이 개발됐다.

또한 금년 수입쌀을 비롯한 원산지표시 관리의 강력한 추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전담하는 전국 4백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소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권 178호 p.52 '발리로드맵과 바이오 플라스틱' Vali-roadmap and Bioplastic을 Bali-roadmap and Bioplastic으로 정정합니다.